

명랑해전 승리 이끌었던 안위장군의 업적 알린다

김제시, 도 기념물 지정
묘역 주변정비 개발
전문가 현지조사 시행

김제시는 지난 28일 명랑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일등공신 안위장군의 업적을 알리고, 도 기념물로 지정된 안위장군의 묘역 주변 정비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전문가 현지조사를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그간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결출한 역사 인물들과 부모를 섬기고 보살렸던 효자·효녀가 유난히도 많은 김제시의 특징을 살려 김제시민이 자긍심을 느끼고 살 수 있는 고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의 일환이기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김제시는 지난 28일 명랑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일등공신 안위장군의 업적을 알리고, 도 기념물로 지정된 안위장군의 묘역 주변 정비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전문가 현지조사를 시행했다

있던 일등공신으로 국왕으로부터 무경철사라는 병법서까지 하사받은 인물이다.

한편 서원대 문화홍보총괄실장은 "시대가 낡은 동양철학의 석학 탄허스님에 대한 생각복원, 구한말의 실학자이자 서화의 대가 석정 이정직과 일제강점기 굳건한 선비정신으로

무장했던 결출한 제자들, 그리고 효성이 지극한 우리 선조들이 기렸던 덕목을 함양하고자, 마을 권역으로 가꾸어 김제시민들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선비문화마을 조성 등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여름휴가, '청춘마이크'와 함께 온라인으로 즐길까?

전북문화관광재단, 청년예술인
온라인 비대면 공연 지원
유튜브 통해 내달 2일까지 공개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 이하 재단)은 온라인 비대면 공연 영상을 '청춘마이크 전북권' 유튜브 채널을 통해 8월 2일까지 매일 낮 12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29일 재단에 따르면 청춘마이크 전북권 참여 예술인으로서 선정된 35개 팀, 120여 명의 청년 예술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면 공연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위기 시점에서 청년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침체를 우려해 변화된 예술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가장 먼저, 다중발집장, 문화기반시설 등에서 관객을 만난 버싱킹 방식의 공연을 온라인 비대면 공연으로 전환한다. 관객뿐 아니라 참여 예술인과 참여 인력의 안전을 위한 방식으로 '청춘마이크 전북권' 온라인 채널을 개설, 공연영상을 송출한다.

또한, 촬영, 녹음, 무대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 보다 질 높은 공연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35개 팀의 개별 공연 영상이 제작됨으로써 향후 대표 프로젝트 영상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참여 예술인에 대한 활동 지원



방식을 다각화했다.

청춘마이크 전북권 참여 예술인들의 공연영상은 '유튜브'와 '네이버TV'에서 '청춘마이크 전북'을 검색하면 시청할 수 있다.

지난 6월에는 35개 영상의 1차 송출을 위해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 홀에서 7일간 촬영과 녹음이 진행됐다. 송출된 영상은 온라인 채널 개설 한 달 만에 누적 조회 수 2만 뷰를 기록하는 등 온라인 관객 호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2차 송출에서는 '가족'을 주제로 참여 예술인들이 셀프 제작한 35개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임진아 팀장은 "힘든 시기에 가장 힘이 되어준 가족, 그리고 동료 예술인들이 서로에게 보내는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영상에 담았다"



며 "이번 온라인 공연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관객과 예술인이 만나는 특별한 창구이자, 새로운 예술지원방식을 도모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청춘마이크는 재단과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일환으로, 학력, 경력에 관계없이 재능과 열정을 갖춘 청년 문화예술인이 전문예술가로서의 성장 발판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청춘마이크 공연은 '청춘마이크 전북' 유튜브(www.youtube.com)와 재단 페이스북(www.facebook/jct.or.kr/)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사업팀(063-230-7441, 063-230-74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우리 고장의 문화예술인을 만나다'

전주문화재단, 내달 17일까지 '예술나비 기자단' 2기 모집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지역문화예술과 조사 및 기록에 관심이 있는 2020 제2기 예술나비 기자단(이하 기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년째를 맞은 기자단은 지역문화예술인의 활동 및 정보를 직접 조사하고 각자의 시선으로 정리해 시민들과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기자단은 올해 총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문화예술인을 중점적으로 82명의 지역문화예술인의 활동조사와 기사작성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지역 내 문화예술에 관심있고, 기사 및 작문 편집 그리고 사진촬영이 가능한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기자단은 활동에 대한 활동비 및 활동 증명서 등 활동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자단 지원은 전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jct.or.kr)에서 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jcf_nabi@naver.com)로 제출



하면 된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예술나비 기자단 활동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참신하고 의미 있는 지역 내 문화예술의 소식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내달 7일 '피아노 예코' 정기연주회

전주대학교 피아노 동문 단체인 피아노예코는 오는 8월 7일 소리문화의전당 연주홀에서 제19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피아노예코는 2001년 11월 5일 첫 정기연주회를 시작했다.

특히 20주년을 맞아 송미희 교수, 김동진 교수, 주영목 교수를 초청 사운음악회로 진행된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두 명 이상의 피아니스트들이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배려와 존중으로 각자의 음악을 조화롭게 만들어가 갈 예정이다. 같은 무대에서 같이 호흡하며 연주하는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 기대된다.

송미희 교수는 절제되고 영롱한 음색의 연주자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전주대 명예교수로, 피아노음악 연구단체인 골드핑거스와 함께 음악적 연구를 지속시키고 있다.

김동진 교수는 겸손함으로 묵묵히 본인의 음악세계를 구축해 온 피아니스트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후 이탈리아 Brescia 국립음악원을 졸업했다.

주영목 교수는 치열한 탐구와 노력을 바탕으로 매년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피아니스트이다.

/장은성 기자

'시립국악단 공연 방송으로 즐기세요'

정읍시, 31일 · 내달 2일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서 방영

정읍시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상설 국악공연이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을 통해 방영된다.

정읍시립국악단(단장 주호중)은 지난 23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7월 정읍사공원 목요 상설 국악공연 일환으로 시민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이번 공연은 시립국악단과 특별출연자가 함께 만든 공연으로 LG 헬로비전과 연계해 공연 실황을 녹화, 중계식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방송은 오는 29일 밤 10시와 31일 밤 10시 40분,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50분에 채널 25번 '헬로 페스티벌' 프로그램에서 3회에 걸쳐 방영된다.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상춘곡'과 '검무', '팔도민요연곡', '아쟁협주곡 '아라성', '액 맥이타령', '쟁강춤', 국악으로 연주하는 대중가요 '나야 나', '멋진 인생', 창작무 '비라밀승무'로 역동적이고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적절히 겸비했다.

공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규모 관객이 모이기 어려움에 따라 현장 공연과 함께 페이스북 실시간 방송, TV 녹화 방송을 병행 추진하게 됐다"며 "가족과 함께 좋은 공연을 감상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사공원 목요 상설 국악공연은 매월 둘째·넷째 주에 개최되는 공연이다. 둘째 주 목요일은 작은 상설공연이란 타이틀로 시립국악단원이 소그룹으로 참여해 국악 버전 버스킹 공연을 선보인다.

또, 넷째 주 목요일은 큰 상설공연이란 타이틀로 시립국악단 전체와 특별출연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다채로운 공연을 개최한다.

다음 공연은 다음달 13일 7시 30분 정읍사공원 야외 소공연장에서 펼쳐지며, 관람료는 무료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063-539-64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으로 떠나는 여행'... 시, 유튜브 영상 공모전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신청접수

남원시는 '남원으로 떠나는 여행'이란 주제로 2020년 남원시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실시하고 11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번 유튜브 공모전은 남원의 관광지, 자연경관, 놀거리, 맛집 찾기 등 남원을 여행지로 소개 할 수 있는 홍보에 적합한 영상물로, 자유로운 형식의 유튜브 영상물이 창작되어 남원 관광 홍보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

참여대상은 유튜브 계정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으로 1인 또는 1팀당 1작품(영상 未 발표작)이나, 아름다운 남원 드론 공모전 개최에 따른 중복 사유로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물은

배제한다.

심사는 심사위원 점수로 10편을 선정 후, 10편에 대한 국민심사(유튜브 좋아요, 댓글수)를 남원시 유튜브 채널(남원시TV)에 2주간 게시해 최종선정은 심사위원 점수(50%)+국민심사(50%) 합산하여 최종 선정하며, 국민심사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추천을 통한 이벤트 상품 또한 준비되어 있다.

시상은 대상 1점(300만원), 최우수상 2점(150만원), 우수상 2점(100만원), 입선 5점(30만원)이고, 참여방법은 참가신청서 1부, 확약서 1부, 출품작 1편을 담당자에게 제출(hijins@korea.kr)하면 되고, 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모사항을 통해 확인하거나, 남원시청 홍보전산과(063-620-6044)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탄소산업 제조인력 양성' 참여 교육생 모집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이은애)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탄소산업 제조인력 양성교육'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무료)으로 미래 먹거리인 탄소산업 분야에 기초지식과 생산능력을 갖춘 우수여성인력 양성을 통해 관련분야 기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교육일정은 8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총 120시간 동안 운영될 예정으로 다음달 20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내용은 ▲제조업 생산관리 이론과 실무 ▲현장개선 3점 5S ▲생산시스템의 이해 ▲행복한 경제활동을 위한 재무설계 ▲현장교육 등이다.

훈련과정 참여자는 취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여성으로 면접을 통해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교육 수강료는 재비부담금 형식으로 10만원을 납부하지만 수료와 취업 시 전액 환급 가능하다.

이운애 센터장은 "탄소산업유를 비롯한 부흥소재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며 "센터는 2015년부터 경력단절



여성 대상으로 전라북도 전략산업인 탄소산업 분야 직업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더불어 "교육 수료자 90%가 관련분야 취업에 성공, 당당히 직장인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탄소산업분야 우수여성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센터는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그룹과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재기지원 협약 체결로 교육에 참여하는 취약계층 여성의 경우 월 30만원의 교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탄소산업분야제조인력" 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은 센터를 방문하거나 취업지원팀(063-254-37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